

# 고흥군,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심화 컨설팅 개최



고흥군은 최근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17-3) '찾아가는 생활밀착형 보건복지서비스 지원체계 구축' 활성화를 위해 2020년 4월에

담당자·승실대·전남대 교수 등 분야 최고 전문가 구성

“복잡·다양한 지역문제 발견·해결위해 역량강화 계기”

수립한 '2020년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기본계획'에 따른 행정안전부 주관 심화 컨설팅을 최근 실시하였다. 이날 컨설팅 팀은 행정안전부 주민복지서비스개발 추진단의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 담당자와 승실대, 전남대 교수 등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구축 분야의 최고 전문가로 구성되었다. 고흥군의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계획의 분석 및 실행, 고흥군의 지역특성, 인구유형, 읍면 조직모형 등을 고려한 맞춤형 심화 컨설팅이 이루어졌다. 특히,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사

회복지협의회의 민간 대표, 보건소장, 방문진료팀장, 주민복지과장을 비롯한 각 팀장, 읍면 맞춤형복지팀장 및 담당자들이 참석한 이날의 컨설팅은 고흥군의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및 지역(마을)복지계획, 지역복지 방향 등에 대한 열띤 논

의가 있었다. 심화 컨설팅에 참석한 읍면 찾아가는 보건복지 업무 한 담당자는 “이번 컨설팅을 통해 우리 지역의 복잡·다양한 지역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지역복지계획 및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데에 있어 역량강화의 계기가 되었다”며 “주민이 참여하고 주민이 주인공이 되는 복지고흥이 되도록 현장에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 김택영 기자

## 광양 진월·다압면, 특별재난지역 선포

피해 주민에게 통신·전기·도시가스 요금 감면 등 혜택

광양시는 2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진월면과 다압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고 밝혔다. 정현복 광양시장은 지난 7~8일

집중호우와 섬진강댐 방류로 진월면과 다압면에 약 70억 원의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관계기관에 조속한 복구를 위한 특별재난지역 선포

를 지속 건의해 왔다. 그 결과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돼 공공시설물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 부담이 줄어들었으며, 피해 주민들은 건강보험료와 통신·전기·도시가스 요금 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정현복 광양시장은 “특별재난지역 선포로 피해 주민들이 힘을 얻

을길 바란다”며 “재난지원금과 의연금을 신속하게 지급해 주민들의 생활이 하루빨리 안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양시 재난안전대책본부는 피해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국비를 추가 확보해 피해 개선복구에 나설 계획이다.

동부취재본부 김택영 기자



## 순천시, 코로나19 인력 부족에 거봉 백병원 의료진 지원 나서

29일까지 5일간 5명

순천시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의료진 부족현상이 나타나자 의료법인 거봉 백병원(이사장 백용기)이 25일부터 29일까지 5일간 코로나19 대응현장에 의료진을 지원하기로 했다. 의료진은 외과 전문의 1명을 비롯한 간호사, 임상병리사, 행정지원 등 총 5명으로 보건소 내 선별진료소에서 근무하고 있다.

경남 거제시에 위치한 거봉 백병원에서 지원하는 의료진은 외과전문의 이효준 과장과 김태열 부장을 포함해 5명이 모두 순천에서 봉사활동을 위해 지원했다는 것.

특히 서미정 간호과장과 백경록 임상병리사, 손병철 행정팀

장 등 3명은 순천 출신으로 고향의 어려움을 적극 돕고 싶어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의료법인 거봉그룹 백용기 회장도 순천출신의 기업인으로 순천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큰 도움을 주고 있다. 허석 순천시장은 “지역사회 감염이라는 어둡고 긴 터널을 건너야 할 긴박한 상황에 거봉 백병원의 의료진 지원은 28만 순천시민에게 큰 힘이 될 것”이라며 감사의 말을 전했다. 한편, 순천시와 거봉그룹은 지난 6월 22일 해동 신대지구에 약 3천여원을 투자해 700명 규모의 종합병원급 의료기관 설립을 위한 투자협약을 맺은 바 있다.

동부취재본부 김승호 기자

## 광양시, 귀농 귀촌인 상생화합 프로그램 적극 지원



광양시는 귀농·귀촌인이 지역에 성공적으로 정착하고 화합할 수 있도록 광양시귀농귀촌협회와 함께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광양시귀농귀촌협회는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2015년 설립돼 현재 100여 명의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시는 올해 2천만 원을 지원해

△환경정화 △동아리 활동 △워크숍 △선진지견학 △농산물 직거래장터 운영 등 총 13개 프로그램 운영을 돕는다. 이삼식 농업지원과장은 “광양시귀농귀촌협회는 귀농·귀촌인이 소통하고 교류하는 사랑방과 같은 곳으로서 이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지역민과 화합해 따뜻한 공동체를 지속적으로 형성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 김택영 기자

## 여수시, 태풍 '바비' 대비 태세 총력

여수시가 25일 오전 11시 권오봉 여수시장 주재로 태풍 '바비' 비상 대비 상황판단회의를 개최했다. 기상청 발표에 따르면 태풍 바비는 26일 새벽과 오전 제주도 남서쪽 부근 해상에서 최대강도로 예상하며, 서해안으로 북상하면서 여수 지역은 26일 오후부터 27일 새벽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회의는 권오봉 여수시장과 부시장, 22개 부서 등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부서별 사전대비 계획 보고, 대책 논의를 통해 태풍 대비 태세에 만전을 기했다. 여수시는 태풍이 북상함에 따라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고, 시민에게 마을방송을 통한 행동요령 홍보와 긴급재난문자를 발송할 계획이며, 피해 발생 시 재난대응 포

준대뉴얼에 따라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응급복구와 긴급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이번 태풍이 매우 강한 바람과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만조 시간 때 도시지역, 해안가 저지대 등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대비를 철저히 하고 저수지 사전 방류로 저수율을 낮출 계획이다. 특히 관내 시공 중인 건축현장이 많은 만큼 타워크레인 설치된 14개소에 대해 사전 결박 등 안전보장을 지시하고 예찰활동 강화에

나섰다. 권오봉 여수시장은 “시내 가로수 전도 등으로 도로 통행지장이 없도록 경찰서, 소방서 등 관계기관과 협업체계 유지로 신속 처리해 시민 불편이 없도록 해달라”며 “해안가 주택과 건설현장 등 태풍 취약지는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변을 잘 살펴주길 바라며, 시민 여러분께서는 외출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 정선웅 기자

# 오늘의 위협을 내일의 안전으로

마스크를 만들어 나누고  
임대료 인하에 동참하는 여러분이 있어  
우리는 코로나19를 반드시 이깁니다.

자랑스러운 시민이  
평화로운 일상을 하루빨리 누리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광산구